

# 철학사

## 31 데카르트

### (휘튼 대학 아서 홉즈 박사)

이번 주에는 르네 데카르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현대에 여러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영국 경험주의 전통의 발전 과정에서 베이컨과 홉스를 살펴보고, 이는 1700년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를 살펴보고, 이어서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를 통해 유럽 대륙의 합리주의 전통으로 나아가 1700년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대륙 철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홉스는 명목론자이며, 윌리엄 오브 오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진정한 보편자는 없다. 물리적 세계, 인간, 또는 정치체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설명 원리는 효율적 원인과 물질적 원인뿐이다. 형식적 원인이나 목적적 원인은 없다.

결과적으로, 그의 명목론은 순전히 경험주의적인 인식론을 낳았는데, 그는 마치 케빈 베이컨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인과관계의 균일한 패턴을 찾으려 애썼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데카르트는 명목론자가 아니라 개념주의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의 합리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즉, 플라톤의 경우와는 다른 의미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보편적인 개념에 대한 직관적이고 선천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합리주의 말입니다. 플라톤은 개념주의자였기 때문에 경험적 일반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보편적인 전제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보편적 원리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합리주의자인 데카르트의 인식론에서, 홉스와 데카르트 모두 표상론적 관점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식은 (홉스의 경우 '마음' 보다는 '의식' 이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 현실을 표상하는 관념들을 즉각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의 정신 상태와 외부 현실 사이에는 인지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우리는 외부 현실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 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표상, 즉 우리의 관념을 통해서만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홉스에게는 감각 관념, 경험 관념이었지만,

데카르트에게는 직관적 관념도 포함되었죠. 어쨌든 두 경우 모두 표상론적 인식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구분 을 통해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 일차적 속성은 실제로 외부 사물의 속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차적 속성과 연관되어 표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차적 속성은 객관적 대응물이 없는 순전히 주관적인 표상입니다. 따라서 인식론은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홉스의 방법이 갈릴레오에게서 차용한 재구성적 방법, 즉 경험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 연역적 체계의 형태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해하기 쉽고 함의를 파악하기 쉽도록 구조화하는 교육적 또는 수사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데카르트와 뚜렷한 유사점이 있는데, 홉스와 데카르트 모두 자신의 철학이 연역적 체계의 형태를 띠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따르는 방식은 경험적 전제에서 연역적 체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서처럼 자명한 진리나 직관적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모델은 공리와 연역적 증명을 통해 확실하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기하학적 체계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만연했던 회의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완전한 확신, 즉 직관적 확신이든 논리적 확신이든 간에, 수학적 방법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실한 전제와 논리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홉스는 철학적 신념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명확한 유물론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질과 운동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데카르트는 이원론자였다. 그는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고자 했으며, 정신 또는 영혼은 비물질적인 실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요소가 결합된 존재라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확장된 실체인 물질과 사고하는 실체인 정신 또는 영혼은 이원론적이다.

알겠죠? 홉스는 결정론자였어요. 네,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포함한 모든 것은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욕구, 즉 동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양가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단순히 그 진동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데카르트는 육체와는 별개의 지위를 가진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은 그러한 인과적 메커니즘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의지의 자유, 즉 선택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는 결정론자라기보다는 자유지상주의자입니다. 홉스는 심리적 이기주의의 특징을 지닙니다. 즉, 생존과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바로 그 자기 이익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윤리에 관해서라면, 그가 주장하는 올바른 이성인 오컴이 주장했던 바로 그 요소, 즉 신중함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자연법은 형이상학적으로 현실의 본질에 근거한 자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이 자기 보존 욕구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법칙일 뿐입니다.

즉, 살아남고 싶다면 평화를 이루라. 평화를 이루라. 이것이 신중함의 첫 번째 원칙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홉스의 전반적인 윤리적 접근 방식에는 강한 쾌락주의적 성향이 깔려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사실상 에피쿠로스 철학과 같은 윤리입니다.

데카르트는 스토아 윤리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윤리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저술하지는 않았지만, 정념, 감정, 느낌에 관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의 견해는 우리의 정념, 감정, 욕망 그 자체는 선하지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홉스보다 인간 본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감정에 필요한 것은 단지 약간의 이성적 지도일 뿐이다. 따라서 이성은 감정을 지배해야 하며, 선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홉스의 윤리는 스토아 철학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홉스가 추구했던 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에라스투스주의적 관점입니다. 즉, 종교적 차이와 논쟁이 있고, 종파주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영국 내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교회의 교리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있습니다.

신의 존재,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 외에, 당시 영국뿐 아니라 유럽 대륙 전반에 만연했던 종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교회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라스투스주의적 관점은 당시 영국에서 상당히 흔했습니다.

반면에 데카르트는 교회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상당히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홉 번째는 흙스가 신에 대해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비록 그가 증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을 만들어낸 인과관계의 사슬 전체에서 최초의 효율적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그게 그가 기꺼이 말하려는 전부입니다. 그의 방법론, 즉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이 드러나는 과정 때문이죠. 신에 대해서도 그가 기꺼이 말하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성공회 신자로서 그는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을 믿는 듯하지만, 교회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계시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데카르트는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데카르트는 보편자에 대해 실재론자가 아니라 개념론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관련된 객관적 실재가 무엇인지에 관해 그는 신을 형식적 원인이 아니라 효율적 원인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세 시대에서 얻은 신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라 플레슈에 있는 예수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등과 같은 중세 사상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효율적 원인일 뿐만 아니라 선하기도 하다. 그런데 흙스는 신의 선함에 대해 철학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데카르트는 신의 선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음,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멈춰서 흙스에 대한 이 개요가 여러분의 생각을 되살려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확해졌나요? 더 자세한 설명이나 재조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네, 크리스틴. 알겠습니다.

과학자가 관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생겨납니다. 이 정보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과 합의의 관점에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사실상 과학자의 관찰, 실험, 분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해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아이작 뉴턴의 머리를 맞히는 상황처럼 말이죠.

음, 보시 다시피, 이 모든 것을 분석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체계적인 이론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개별적인 관찰 결과를 분해한 다음, 이제 그 이해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 더 나아가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관찰 내용을 전제나 추론으로 정리해서 논리적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더 나아가 추론을 도출하는 거죠.

음, 재구성 방법 말인데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가설연역적 방법, 즉 연역적 재구성의 전제는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홉스에게 있어서 전제는 경험적 일반화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에서 이론적 이해를 정립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험적 전제를 바탕으로 연역적 추론을 하는 방법, 수학적 공리와 같은 직관적 전제를 바탕으로 연역적 추론을 하는 방법, 그리고 19세기부터 등장한 가설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설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발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이 소위 포괄하는 일반 법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광범위한 경험적 일반화이며, 여러분의 경험적 발견은 단지 그 일반화의 구체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학기에 존 스튜어트 밀을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죠. 데이비드? 네, 맞아요. 베이컨은 연역적 방법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베이컨에 대해 다룬 거의 모든 주석이나 역사서를 보면, 그가 수학적 방법에 집착했던 경향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부족했던 거라고 나와 있죠.

가설의 사용은 베이컨의 방법과 후대의 귀납적 방법 사이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제가 크리스틴에게 19세기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가설의 사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수학적 방법론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데카르트 시대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홉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홉 번째 항목, 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세 과학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과학은 그리스 과학, 즉 피타고라스 학파, 플라톤 학파,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의 붕괴는 상당 부분 명목론의 대두, 즉 순전히 경험적인 방법의 발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도 경험적인 수단 외에는 얻을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적 방법으로의 전환에는 명목론의 대두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영국의 철학자 마이클 포스터(MP 포스터)가 1930년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학술지 '마인드(Mind)'에 발표한 일련의 논문에서, 경험 과학의 발흥은 중세 후기에 이르러 창조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물리적 창조의 본질은 전적으로 우연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꼭 지금처럼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필연적인 창조가 없다면, 사물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고정된 형태가 없다면, 윌리엄 오브 오컴이 말했듯이 창조된 것들은 모두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저 관찰하고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연의 과정이 접근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며 우리의 경험적 방법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이 보장해 줄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신학적 정당화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2학기 마지막 3분의 1쯤에 읽게 될 앨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말입니다. 앨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20세기의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이해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형상론과는 별개로, 즉 하나님이 창조물에 이해 가능한 질서를 부여했다고 추정되는 방식과는 별개로, 이성적인 하나님은 창조물을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자연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성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인간의 감각을 믿을 만하게 만드는 주관적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 겠죠? 인간의 이성과 감각의 신뢰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문 수업에서 데카르트를 회의주의적 관점에서 배웠다면, 네, 여전히 같은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방법론적으로 회의주의자의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성은 회의적이고, 감각도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명상에 이르러서는, 선한 신이라면 우리에게 결함 있는 지적 능력을 주어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이므로 이성은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성은 신의 선하심에 근거합니다.

명상록 말미에 이르러 감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다시 한번 같은 종류의 논증을 펼칩니다. 즉,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신이라면 우리에게 신뢰할 수 없는 감각을 주어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데카르트가 단순히 신이 효율적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의 은총 덕분에 인간 이성과 감각의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따라서 회의론자들보다 과학과 철학의 발전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이었으며, 토마스 홉스보다 훨씬 더 합리적 가능성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중세 사상이 근대 과학의 발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과학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집니다.

우리 졸업생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린드버그는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에서 과학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린드버그는 이러한 손쉬운 정당화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중세 시대의 실제 문헌에서는 그런 확신에 찬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답변의 일부입니다. 또 하나는, 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라는 정신이 형상론과 오컴이나 베이컨 같은 사람들이 자연을 인간의 이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그 기반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데카르트의 명제는 역사적 명제가 아니에요. 그는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화이트헤드나 마이클 포스터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지요.

데카르트의 명제는 논리적인 명제이지 역사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신은 선하기 때문에, 즉 신은 선하다는 전제가 성립합니다. 데카르트는 앞선 명상에서 그 증명을 제시했죠. 그런데 신이 선하다면, 신이 하는 일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은 믿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는 것이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며, 기만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 근거가 아닌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화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데카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떠세요? 좋아요.

이 선집에는 아마도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일 『명상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편집자 카우프만의 서문을 읽어보면, 『명상록』이 베네딕트 스피노자, 프랑스 철학자 말브랑슈, 그리고 라이프니츠 등 후대 철학자들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참고점인 셈입니다.

게다가 오늘날까지도 데카르트는 20세기 이전 프랑스 철학자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며, 20세기에든 여전히 가장 높이 평가받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처음 강의하는 사람들이 모두 르네 데카르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그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명상록을 읽다 보면, 홉스와 베이컨, 데카르트 사이에는 대조적인 점이 많지만, 베이컨과 데카르트 사이에는 초기에 강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거의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이컨은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모든 우상을 부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그리고 그 외의 우상들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가정과 잘못된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철학적 또는 과학적 방법론이나 과거의 철학적 신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베이컨은 그렇다 치더라도, 데카르트 역시 그 점에서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데카르트의 『성찰』 첫 번째 성찰은 바로 그가 ‘나는 의심한다’라는 명제를 설명하고 의심할 이유를 제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꽤 명확해졌습니다. 스콜라 철학 방법론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인식론적 공백에 대해 우리가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회의주의의 부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이컨과 홉스는 모두 기존의 인식 방법과 기존 믿음에 대한 회의주의적 한계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말하자면 회의적인 입장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회의주의를 벗어나 새로운 철학적 탐구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과학과 철학이 지금까지 얼마나 의심스러운지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학과 철학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앞으로의 과학과 철학도 항상 의심스러울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게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이컨은 기존에 사용되던 방식보다 훨씬 더 신중한 경험적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었던 거죠.

데카르트는 수학에서 작동한다고 생각되는 일종의 분석 및 논리적 방법을 고안했는데, 당시 회의론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회의론자 섉스투스 엠포리쿠 스는 실제로 수학자들을 비판하는 저서를 썼습니다. 데카르트는 수학적 추론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았습니니다.

수학적 증명 의 본질 때문에 가장 의심의 여지가 적고 가장 합의가 잘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 다시 말해, 주제를 일련의 개별적인 판단과 명제로 나누고, 직관적으로 자명한 것에서 시작하여 연역적 추론을 통해 논리적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방법의 단계에서 베이컨의 새로운 방법과 데카르트의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험주의적 경향에서는 전제가 경험적 일반화에 기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는 것은 증거, 어찌면 확률일 뿐 확실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전통에서는 전제가 자명하고 직관적이라면, 그가 말했듯이 모든 의심을 초월하는 완전한 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확실성 , 즉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전제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 특정한 결론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특정한 결론이 참이라는 믿음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경험적 근거는 결국 확률에 의존하게 됩니다. 오늘날 인식론에서 증거주의라고 불리는 이러한 믿음의 정당화 접근 방식은, 1월 첫 주 수업에서 존 로크의 증거주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존 로크는 믿음의 정도를 증거에 비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데카르트는 그의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성을 바탕으로 믿음의 정당화에 대한 접근법, 오늘날 기초주의라고 불리는 접근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소위 강경 기초주의자 또는 강력한 기초주의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제1원리가 존재하며, 따라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약경 기초주의자 또는 온건 기초주의자는 전제가 논리적으로나 직관적으로 확실한 것보다 조금 더 모호할 경우, 그 주장을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식론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제이 우드 교수나 그의 강의를 접한다면, 믿음의 정당화, 기초주의, 증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역 체계의 출발점이 베이컨식 귀납법과 경험적 전제에 기반하느냐, 아니면 데카르트의 수학적 공리에 기반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네,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신념의 정당화에 대한 말씀은 변증학 같은 분야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변증학은 특정 기독교 신념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략이 사용됩니다.

사실, 기독교 변증학의 역사는 인식론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추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증학은 적어도 방법론에 대해 성찰적으로 이루어질 때, 응용 인식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변증학은 그저 응용 인식론일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명상록 1권에서는 우리가 흔히 방법론적 회의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데카르트가 자신의 방법론 때문에 채택한 그러한 회의주의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주목해 보세요. 감각 지각의 상대성을 주목하십시오.

감각 지각의 상대성, 그건 새로운 게 아니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으니까요. 플라톤도 그 주제를 다뤘고요. 경험주의자는 감각 지각이 관찰 조건, 관찰자, 시간, 장소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둘째로, 그는 어쩌면 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설령 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면, 악한 영이나 악마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적어도 가설적인 가능성은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가능성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고 싶다면, 그러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가설적인 가능성조차도 배제 해야 합니다 .

그러니 그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는 확률에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한 몇 가지 규칙을 정하는데, 명상록이 아니라 그의 다른 저서인 『방법서설』에서 제시하는 첫 네 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만을 직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분명한 것만을 직관적으로 자명한 것, 직관적으로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명확하고 분명한 관념'이라는 표현은 데카르트 저술 전반의 특징이다. 모호함이나 혼동 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 해야 한다 .

서로 관련된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명확성과 구별성이 중요합니다. 명확성과 구별성을 얻으려면 어떤 믿음든 구성 요소로 분석 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 즉, 지식 체계를 구성 요소로 분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들을 재구성하고, 이러한 재구성적인 접근 방식을 다시 활용하세요. 논리적 증명의 형태로 재구성하십시오.

논리적 증명의 형태로 재구성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고등학교 기하학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증명과 그 증명의 모든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이것이 그가 제시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첫째, 명확성과 분명함입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점 중 하나는 그가 직관적 지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다양한 동의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확성과 분명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게 그 일부입니다. 그는 직관과 직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직관적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자각을 의미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은, 그가 우리가 물질적인 대상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신의 존재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증명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명확하고 분명한 직접적인 인식을 원합니다. 즉, 직관적인 인식이죠. 그런 직관적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그러한 생각들을 배우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성의 자연스러운 빛으로부터. 이성의 자연스러운 빛으로부터.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분명히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은유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면 보이는 빛, 즉 동굴 바깥의 빛은 이성의 자연스러운 빛을 의미하지만, 그 뿌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에 있습니다.

다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성한 로고스의 빛이 우리의 인식 대상을 비추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밝혀주었던 것이, 데카르트에게는 단순히 이성 자체의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데카르트에게는 로고스 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킨라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킨라 철학자들이 발전시켰던 방식대로 로고스 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형상론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빛이었던 것이 이제는 인간 이성의 빛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성의 빛 말이에요. 그는 객관적 현실과 형식적 현실을 구분합니다.

다시 말해, 직관적으로 명확하고 이성의 자연스러운 빛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관념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앞에 있는 것은 객관적 실체를 지닌 관념입니다. 즉, 의식의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그 관념입니다. 외부 현실이 아니라 관념 말입니다.

표상적 인식론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념입니다. 따라서 그는 관념의 객관적 실재와 그것이 표상하는 외부 사물의 형식적 실재를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형식적 실재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관념의 원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구절들과 마지막 구분은 그의 사고 과정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꽤 중요해 지는데,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구절은 명상 3에서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잘 살펴보세요. 어디 보자.

아, 그리고 그가 쓰는 또 다른 표현 하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자명한 사실'이죠. 어떤 믿음들은 그 자체로 증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것도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선천적인 지식, 선천적인 관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가 말하는 '선천적인'이라는 개념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선천적인 관념이란 이전 생에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관념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타고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단지 다시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

하지만 데카르트에게 있어 선천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것 , 자연적인 기원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왔지만, 그가 이러한 설명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들은 경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가 솟아올라 의식 속으로 나타나고, 마음 자체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네, 선천적이라는 건 모든 경험에 앞서고, 모든 경험과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선천적 관념은 보통 보편적이고(누구나 가지고 있죠) , 필연적이라고 여겨져요.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거죠.

그 반대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종류의 모순을 수반할 것입니다.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이 선천적 개념은—물론 플라톤 등 더 이전 시대에도 뿌리를 두고 있지만—데카르트에서 출발하여 유럽 대륙의 합리주의 전통 전반에 걸쳐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주의를 경험주의와 구별 짓는 핵심입니다.

경험주의자는 우리에게 선천적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합리주의자는 우리에게 선천적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제퍼슨이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자명하다고 여긴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일종의 선천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퍼슨은 다른 어떤 철학적 전통보다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마도 로마 법학이나 라크 같은 전통에 속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제퍼슨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그것들이 즉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즉,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진리를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자명하고 자명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는 일종의 선천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데카르트는 그보다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관념을 떠올리는 '마음의 마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데, 예를 들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라는 개념이겠죠? 신이라는 개념이요. 네. 자, 때때로 직관적 기준, 즉 직관적 진리 기준이라고 불리는 것은 전제뿐만 아니라 그 전제에서 도출하는 추론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한 가지 방법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가 전제에서 벗어나 갑자기 눈에 띄는 경우입니다.

3 더하기 5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아, 소크라테스도 인간이었으니 논리적 삼단논법의 결론이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는 전제에 비추어 결론이 최대한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오기를 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방법은 직관과 추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직관과 추론이라니. 좋습니다. 바로 그런 요구 때문에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 규칙들을 적용해 봤을 때, 놀랍게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거든요.

데카르트의 출발점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실용주의에 이르러서는 실용주의 전통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찰스 샌더스 피어스가 의심을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건 방법론적인 전략이에요. 그런데 방법론적인 전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검증을 견뎌낸 다면 그냥 자기가 믿는 걸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음, 이 방법과 회의주의와 다른 접근법들이 판치는 시대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죠. 데카르트의 방법이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겨울에 난로로 데운 방에 틀어박혔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혹은 적어도 저지대 국가들을 여행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난로가 있는 방에서, 자신이 믿는 모든 것들을 직관적인 연역적 체계로 공식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데카르트가 난로가 있는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니!

밖이 춥군. 난로에 장작을 더 넣어야겠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내 시체가 정말 있는 건가? 아, 난로에 장작을 더 넣어야겠군.

암묵적인 모순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가 이론적으로 하는 일과 실제 행동이 모순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적용했던 기준은 실용적인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종류의 요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에 주관적 이상주의자인 조지 버클리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직접적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실재론자는 데카르트의 방법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 현실을 전적으로 표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식한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증명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추위를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에게 몸이 있다는 증거죠. 뱃멀미 해본 적 있어요? 뱃멀미를 하면서 앞으로 일주일이나 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몸이 없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마치 몸의 절반이 이미 해외로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뭐, 그가 가끔 듣는 비판 중 하나죠.